

## 역도 박혜정 용상 170kg 한국신기록 '번쩍'

### 합계 294kg 들어올려 금메달

역도 박혜정(20·고양시청)이 용상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라이벌 손영희(30·부산시체육회)를 꺾고,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정상에 올랐다.

박혜정은 17일 완도농어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전국체전 역도 여자 일반부 최종량급(87kg 이상) 경기에서 인상 124kg, 용상 170kg, 합계 294kg을 들어 우승했다.

합계 2위 손영희의 기록은 291kg(인상 127kg·용상 164kg)이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박혜정은 합계 294kg(인상 125kg·용상 169kg)으로 13년 만에 한국 역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선물했다.

당시 손영희가 합계 283kg(인상 124kg·용상 159kg)으로 2위를 차지해, 1990년 베이징 대회 남자 90kg급 김병찬(금메달), 이형근(은메달), 남자 110kg급 김태현(금메달), 전상석(은메달) 이후 33년 만에 아시안게임 역도에 한국 선수가 1,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국체전에서도 박혜정과 손영희는 치열하게 싸웠다. 합계 기록만으로 메달을 수여하는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달리 전국체전에서는 인상, 용상, 합계에 모두 금메달이 걸렸다.

인상에서는 손영희가 1위를 차지했다.

인상 3차 시기에서 128kg을 시도했지만, 바벨을 놓친 박혜정은 용상에서 역전에 성공했다.

박혜정은 용상 3차 시기에서 170kg을 들어 손영희가 올해 5월 진주아시아선수권에서 작성한 중년 한국 기록 169kg을 1kg 넘어선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이날 손영희의 용상 기록은 164kg이었다.

손영희가 용상 3차 시기에서 169kg에 실패해, 합계에서도 박혜정이 손영희를 3kg 차로 제쳤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박혜정이 고등부 경기에



17일 완도농어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 일반부 87kg급 결승에서 박혜정(고양시청)이 용상 3차 시기 한국신기록인 170kg에 도전하고 있다. 박혜정은 용상 170kg을 들어올리며 인상 2위, 용상 1위,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출전해 우승하고, 손영희가 일반부 정상에 올랐다.

혜정이 승리했다. 여자 일반부 87kg급 라이벌전에서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윤하제(24·김해시청)가 인상 104kg, 용상 146kg, 합계 250kg으로, 합계 242kg(인상 105kg·용상 137kg)을 든 항

저우 대회 3위 정아람(24·인천시청)을 제치고 우승했다.

/연합뉴스

## 광주 검도, 무더기 메달 사냥...종합 우승 향해 '순항'

광주 검도가 전남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무더기 메달 사냥에 성공하며 종합 우승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광주북구청이 지난 16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검도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금빛 검술을 펼쳤다.

광주북구청은 예선에서 충남체육회를 1-0으로 꺾은 뒤 준결승과 준결승에서 전북체육회와 울산체육회를 모두 대표전 끝에 1-0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다.

이어 결승에서 전국 대회 네 차례 우승을 거둔 강틴인 전남 대표 무안군청을 상대로 다시 1-0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선발은 지난 1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선발은 예선에서 서울선발을 대표전 끝에 3-2로 이긴 뒤 준결승에서 충북선발을 대표전 끝에 2-1로 물리쳤다.

이어 준결승에서 경남 대표 김해시체육회를 2-0으로 완파했으나 결승에서 충남 대표 유원대에 대표전까지 가 1-2로 석패했다.

조선대도 지난 1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남자대학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북구청 선수단이 지난 16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검도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북구청 검도단 제공>

조선대는 예선과 준결승에서 강원선발과 경남 대표 영산대를 모두 2-1로 꺾었으나 준결승에서 전남선발에 0-1로 패하며 결승행이 좌절됐다.

다. 검도 종목 마지막으로 남자18세이하부 단체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대표 서석고가 17일 열린 예선에서 경남선발을 3-1로 완파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서석고는 18일 오전 부산선발을 상대로 동메달 확보에 도전한다.

한편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한 개씩 획득한 광주 검도는 종합 우승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 연구원 등 9명 파견 지원 역할 '톡톡'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13일부터 전남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04회 전국체전에 박사급 연구원들과 건강운동관리사, 전문 트레이너 등 9명을 파견해 광주 선수들에게 종목별·개인별 맞춤 스포츠과학 컨디션닝과 최신 첨단 회복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 전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테이핑, 근육피로회복, 스포츠영양 프로그램 등의 컨디션닝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 후에는 초음파와 냉요법기, 스포츠근막이완요법 등을 통해 피로 회복과 스포츠 심리지원, 영상분석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돕고 있다. 연구원의 현장 밀착지원은 선수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5일 예U18 100m허들에서 금메달을 딴 김찬송(광주체고)은 "스포츠과학 현장밀착지원으로 컨디션 관리 및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확대돼 보다 많은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연구원은 2015년 개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 트레이너가 17일 제104회 전국체전 육상 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선수들에게 컨디션닝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소한 광주스포츠과학센터와 2020년 전국 최초 개소한 컨디션닝센터 및 스포츠 유전자 지원 등을 통한 혁신 정책들을 발굴해 우리나라 스포츠과학을 선도하는 혁신모델로 자리잡았다"며 "내년에도 다

양한 분야의 산학협력 및 R&D 사업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 도시, 광주'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황선우 3관왕·김우민 4관왕 불꽃 튀는 체전 MVP 경쟁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와 김우민(이상 강원도청)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합작하며 각각 3관왕, 4관왕을 확보했다.

황선우와 김우민은 17일 목포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남자 일반부 계영 400m 결승에서 양재훈, 김민준(이상 강원도청)과 강원 대표로 나서서 3분15초94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이들은 대구 대표인 양석현, 지유찬, 김진원, 이호준(이상 대구시청·3분16초37)과 접전 끝에 금메달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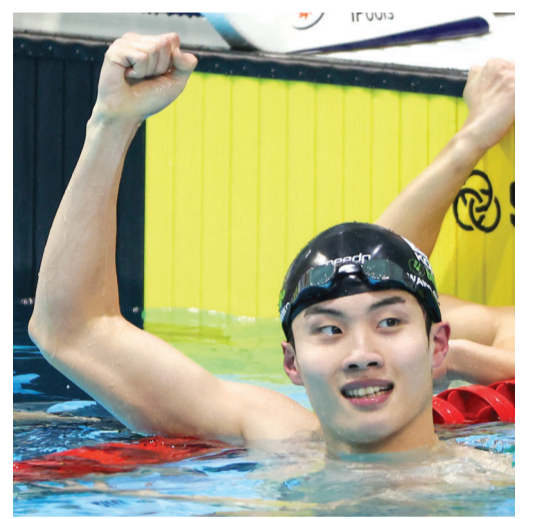
지난 달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나온 한국 기록(3분12초96)은 경신하지 못했다.

황선우는 15일 남자 일반부 계영 800m, 16일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m에 이어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자유형 100m(18일), 혼계영 400m(19일)와 시범 경기로 치러지는 일반부 혼성 혼계영 400m(18일)에도 출전해 추가 금메달을 노린다.

김우민은 14일 자유형 1500m, 15일 계영 8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이날 자유형 400m와 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4관왕을 확보했다.

김우민은 혼계영 400m와 일반부 혼성혼계영 400m(시범경기) 등 2개 종목이 남았다.

시범경기는 다관왕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가운데,



황선우

데, 둘은 나란히 5관왕을 노린다.

황선우와 김우민은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을 놓고도 경쟁하고 있다. 2021, 2022년 대회 MVP인 황선우가 이번 대회에서도 수상하면 사상 최초 3년 연속 MVP에 오른다.

둘은 대회 개막 직전 강원도청 동료들과 음식을 잘못 먹어 식중독 증세에 시달렸으나 최악의 컨디션 속에서도 금메달을 쓸어담으며 불꽃 튀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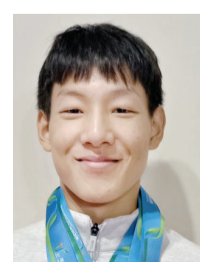
## '제2의 양학선' 문건영, 고등부 개인종합 금

### 기계체조 2회 연속 우승

'제2의 양학선'으로 불리는 체조 유망주 문건영(사진·광주체고)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최초 개인종합 2연패를 기록하며 새역사를 썼다.

문건영은 17일 영암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기계체조 남자 고등부에서 개인종합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문건영은 개인 종합 결선에서 마루 13.533, 안마 13.533, 링 13.20, 평행봉 14.133, 철봉 13.60, 합계 81.566으로 개인종합 2연패를 달성했다. 문건영은 이날 6개 종목 모두에서 깔끔한 동작과 완벽한 착지를 선보이며 관중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문건영은 지난해 각종 전국대회를 휩쓸며 한국 체조 유망주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한국 기계체조 사상 최초로 고교 1학년이 개인종합 금메달과 3관왕이라는 새역사를 작성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기계체조 남자 고등부 개인종합에서 78.101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한 그는 도마와 평행봉에서도 각각 13.738점과 13.3점을 올려 3관왕을 차지했다. 철봉에서는 12.675점을 받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건영은 오는 19일 남은 종목 경기에서 5관왕에 도전한다는 각오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